

조계종 '참회'...현안해결 대책기구 구성

중앙종회의원 13명·총무원 집행부 2명 참여 교계 안팎서 "특단의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종립학교 교수 채용문제가 발단이 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고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광주 마곡사, 제주 관음사, 인제 백담사 등에 불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겨 역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어찌 당사자들만의 책임이고 허물이겠습니까? 종단의 중책을 맡고 있는 소납(小納)을 비롯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승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먼저, 종단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최근 종단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9월 4일 개원한 제174차 임시 중앙종회 인사말을 통해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조계종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 수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도 문제의 원인이 승가 내부에 있다고 고백했다. 현문 스님은 9월 3일 열린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스스로 승려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자아비판했다. 동국대 신자아 前 교수 문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중앙종회도 '참회'의 뜻을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9월 4일 발표된 결의문에서 “각종 불교계 현안문제로 불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참회 드린다”며 “깊은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고, 우리 교계와 종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의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종단이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종식해야 한다”며 “동국대 사건과 관련해

종립 동국대학교 임원진은 사퇴해야 하며, 사건 당사자의 한 중심이었던 장운 스님도 멋있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국대 임원진 사퇴 요구는 참여 불교재가언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8개 줄·재가 단체들이 9월 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조계종단 일부 사원과 스님들의 비리

는 더 이상 승가공동체이기를 포기한 모습”이라며 △동국대 이사스님들의 공개참회와 이사장 사퇴 △핵심 교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장운 스님은 즉각 검찰의 소환에 응해 사실을 밝히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종권다툼을 중지하고,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스님 이외의 각 분야 전

문가로 개방이사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종단 사법기관의 엄정한 종법집행과 '교단청정위원회' 등 상설 자정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중앙종회 초선의원 20명도 9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국대 문제와 관련 ‘같은 당사자였던 현직 스님이사 전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동국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학교 운영을 지

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총무원 집행부와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에서는 영담, 광조, 향적, 성직, 장적, 태연, 원담, 덕문, 자승, 상운, 지홍, 윤달, 수현 스님이 참여하며, 총무원 집행부 2명도 포함돼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불자와 국민들의 시선은 대책기구로 쏠려있다. 대책기구가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결의문에서처럼 ‘참회를 통한 자정의지를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할 경우 ‘변표’용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대책기구 구성원인 지관 스님은 “대책기구는 종단 현안 문제를 논의할 통해 수습하는 차원에서 구성됐다”며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책기구 운영과 관련 덕문 스님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합의체 형식으로 갈 것”이라며 “추석 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불교재가언대 교단자정센터 손욱규 팀장은 “대책기구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야하겠지만 대책기구 또한 제과간 안배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인적쇄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여수령 기자

社 告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님 모십니다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망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 모집 지역(9개 지역)

- 강원동부: 강릉 동해 삼척 일원
- 강원서부: 춘천 원주 정선 영월 평창 홍천 일원
-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충남: 대전을 제외한 충남 전지역
- 경남남부: 마산 창원 일원
- 경주전남: 광주 및 전남 전지역
- 전북: 전북 전지역
- 제주도: 제주 전지역

● 사업내용

- 지역 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간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 계획서, 신분증 복사본
- 제출기한: 2007년 9월 13일(목)
- 제출방법: 우편(13일 도착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처: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2004-8234



한국불교총화종 유지재단 설립

후학양성·포교사업 주력 방침

한국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종지종풍 함양에 박차를 가한다.

총화종은 8월 27일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종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불법홍포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정 스님은 “출가자로서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유지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후학양성을 위한 강원을 설립하고 출판물 간행 등 포교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에는 총화종 흥반산 수진사에 교육시설을 겸한 대웅전과 유치원을 설립하는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총화종은 사설사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지재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재단 운영에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총화종 측의 설명이다. 스님은 “재단 설립에 기여한 뜻을 함께 해준 종단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출가 후 42년 동안 품고 있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개강

“자비의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를 밝히는 자비명상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9월 3일 '자비명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스님 20명과 일반인 15명이 각각 오후 2·7시 서울 법련사 강당에 모였다. 지도감사 마가 스님은 강의에 앞서 법령과 이름이

아닌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교육 기간 동안 그 단어로 이를 대신 상대방을 부르기로 했다. 강의는 자기소개에 이어 마음나누기, 영진 손 풀기, 마음의 눈 넓히기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7주간 감사명상, 유서쓰기, 공감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심습과 심화교육을 받고 자비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곽명배 기자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양초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윽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이 늘 환히 밝힐수 있으며, 30초 간격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이 다채로, 꽃반송, 노랑, 형색, 옥색 외 다수가 출시 되었다. 이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꽃분홍) 소원성취(연홍)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노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6cm, 5 x 7cm으로 복장위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위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질크기(3.5x6cm)금강경 2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임업무 ◆
민사·형사
가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1 팩 031387-5409
후대폰 010-7504-4521 (2명제 변호사)
017-535-0685 (1명제 변호사)
010-4488-3740(2명제 변호사)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불교원전전국학원 “삼부원” ■ 학술연구사업: 삼학총서 간행 / 전국연구자결집 “가산학회” / 수행결사 “동행포럼” 운영 ■ 문화교회사업: 정기 “수행문화포럼” 진행 ■ 전문출판사업: 4대사업 성과를 및 기획출간사업

“가산불교대사람 제9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람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산불교대사람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7·8·9권 출간, 10권 근간, 전18권(보유 세 권 포함)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원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람」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0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